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본격화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4조6천억 투입 체질 혁신 중점 추진

김지사 “다시 일어설 결정적 전환점”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 관련기사 4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

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3일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 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6천 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아우르는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NCC 설비 감축 및 구조 조정 추진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지원, 재교육,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을 지킬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 온 분야”라며 “석유화학산업을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등 산업 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후속 지원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제도 보완을 체계적으로 진행,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드는 복안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의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간의 업무협약식이 3일 국회에서 열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 ‘5+1 협약’ 지지부진…가시적 성과 전무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5+1 협약’이 군공항 이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전문위원회는 3일 2026년도 광주시 본 예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유치, 옛 전방·일신방지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지산 IC 진출로, 어등산 관광단지, 군공항 이전 등 ‘5+1 협약’을 취임 후 6개월 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임기 말까지도 가시적 성과는 없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옛 전방·일신방지 개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공사가 시공권을 반납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태다.

총 5천899억원의 공공기여금 중 현금 3천억원이 착공 이후 5년에 걸쳐 분납되는 구조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중단 시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이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역시 시공사 선정과 착공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만

시의회, 내년 본예산 검토보고서

방직공장터 개발·지산IC·어등산 답보

“군공항만 진전…공약 이행 재점검을”

재정자립도 최하위…채무 비율 23%

진행해 ‘보여주기식 추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산IC 우측 진출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결정돼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 실정이며, 실제 내년 본예산에도 용역비 5천500만원만 반영돼 민선 8기내 원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 위원실의 분석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토지비 중도금 납부 외에 실 공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협의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통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의 중재와 3천억원 선(先) 지원 결정, 민간공항 선 이전 수용이 맞물리며 유일한 진전 사례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재정 여건 역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채무 비율은 23.13% (장기미집행 포함 시 27.37%)로 2020년 지방채 원금 상환 액은 1천978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자만 402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재정자립도는 33.88%, 재정자주도는 52.90%로 2022년 이후 내림세가 이어졌고, 자체사업 비중도 20.14%로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졌다.

전문위원회는 “5+1 협약”은 군공항 이전 외에는 대부분 지역·중단·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공약 이행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4대 개혁과제 제시

김지사, 비상계엄 저지 1주년 성명

“빛의 혁명 완전한 승리 앞장설것”

김영록 전남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3일 대도민 성명을 통해 “12·3의 밤, 우리가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빛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4대 개혁의 길에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사가 제시한 민주주의 선진 국가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지방분권 국가’ 헌법 천명이다.

김지사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그날의 승리 위에 전남도와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코리아 리스크’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며 “전남은 AI와 에너지를 양 날개 삼아 유례없는 황금빛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비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 1면 ‘빛의 혁명 1주년…’서 계속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 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느냐”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절제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

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며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잘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1) 꼬마상가 2억6,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보800월120만원(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종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062)222-1095, 1096

“좋은生活 사랑받는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도 드리는 광주 미일신문 广告。
사랑받는 广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 복사기 ▣ 컴퓨터 ▣ FAX
-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 전산소모품
- ▣ 레이저(토너/드럼)
- ▣ 카트리지
- ▣ 각종 잉크류
- ▣ 복사용지
- ▣ 팩스용지
- ▣ 임 대 ▣ 판매
- ▣ A/S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 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히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